

“北 비핵화 증명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 없을 것”

폼페이오, 文대통령 예방
韓·美·日 외교장관 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소평가는
민심의 평가와 동떨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로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 동안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인했다”며 그 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핵화를 조

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전쟁 기간의 전사자 유해발굴 송환에 남북미가 공동작업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 예방후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공약을 교환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게 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며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 신고 내용과 완전한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거기서 핵심적(centr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등 보상의) ‘순서’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전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명히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부유한 북한을 그리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와 통합된 모습을 그렸다. 김 위원장도 이런 비전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언급으로 논란이 야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의 문제이고 동맹차원에서 군단국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동맹의 문제는 철통 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미정상회담과 그 합의에 대해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CV ID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 ‘더민주’ 압승

첫 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 탈환

강남 3구 중 서초 제외 24개구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서초구 한 곳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하고 송파구청장도 16년 만에 탈환했다. 자유한국당은 간신히 서초구청장 자리만 지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24개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선거에 앞서 현직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남 3구와 중구, 중랑구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중구, 중랑구, 송파구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15~20%포인트 격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다.

5개 구 중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봤던 강남구에서도 정순균 후보가 한국당 장영철 후보를 5%포인트 앞서며 민주당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했다.

민선 1, 2기를 제외하고 3기 이후 모두 한국당 계열 정당이 차지했던 송파구청장도 16년 만에 탈환했다.

한국당은 강남 3구 가운데 2곳을 잃으면서 보수정당의 ‘강남불패’ 신화가 깨졌다.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는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서울 구청장 25곳 전체를 석권했지만, 12년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그간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보수텃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만큼 강남 3구를 싸늘이 하겠다고 기대해 왔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역시 “민주당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문재인 정부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서울시민 삶의 질도 확고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서울-평양 등 北 도시들과 교류 박차

》1면 ‘3선, 박원순 서울시장’서 계속

박 시장은 또 ▲평양 그리고 북한의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 추진 ▲노후건축물 안전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 ▲미세먼지 해결 위한 8만대 전기자동차 보급 등 앞으로 펼칠 굵직한 시정 계획들을 소개했다.

북한과의 교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과 평양, 서울과 북한의 여러 도시들과의 협력 추진이 핵심이다. 박 시장은 “큰 틀에서 국방이나 안보와 같은 정부의 진전을, 서울시가 시민들, 주민들의 삶에 관계된 것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중앙

정부가 큰 길을 뚫어 놓으면 서울시가 메워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용산상가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박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책이 가진 한계들이 드러나고 있다. 형식적으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큰 사고가 될 뻔한 아찔한 시간이었다”며 “시의 책임과 권한은 아니지만 소형건물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로 지정됐지만 추진과 해제사이에 결정되지 않은 곳을 빨리 결정하자고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김현정 기자 valere@

당 대표직 사퇴하는 홍준표·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진영 기자

개성 공동연락소 개소·긴장완화 논의

10년6개월만의 남북장성급회담

남과 북이 2007년 12월 이후 꼭 10년 6개월 만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의 임시 사무소 개소를 위한 협의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되돌아보니 2007년 12월 이후 햇수로 11년만”이라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절기상 망종이었다. 아마 농사 일정상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라며 “특히 곡식의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가을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런 회담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한 사자성어인 ‘쫄탁동시’를 인용하면서 “밖에서는 어미 닭이 껍질을 쪄아주는 노력, 안에서는 병아리가 깨고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합치됐을 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인데, 우리 남과 북 군사당국이 협력, 합치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은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소나무 정신을 거론하면서 “우리 만남은 절대 역풍이 되지 말자. 오히려 선두주자가 되자”면서 “우리 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회담 정신은 소나무 정신으로, 회담 속도는 만리마속도로, 회담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